

아동학과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강 문 희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1. 머리말

아동학의 학문적 성격은 인간, 특히 아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것으로서 인접 학문인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문화인류학 등의 제 학문들과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적·교육적 복지 향상에 공헌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 아동기까지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태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학이 학문으로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아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과거에는 아동을 비교적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해 왔으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아동관은 어린아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법으로 탐색해 나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며, 아동을 어른의 부속물이나 축소판이 아닌 고유한 인격체이며 가능성의 존재로서 존중

* 학과별 교육과제 칼럼에 실린 내용에 대해 이견이나 반론이 있는 분은 200자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대학교육』지 편집실에 투고해 주시면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해 드립니다.

하여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관의 변화와 함께 아동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에 기초를 두어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들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존중받는 독특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돋기 위한 체계적인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힘입어 탄생된 아동학은 초기에는 가정대학 소속이거나 가정학과 또는 가정관리학과의 하위 전공 영역 중의 하나로 그리고 가정학회의 한 분과로 자리잡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2년 숙명여대에 아동복지학과와, 1973년 연세대에 아동학과가 신설됨으로써 아동학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에는 한국 아동학회가 창설됨으로써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 서울여대, 성균관대, 동덕여대, 경원대, 인제대, 영남대, 호서대 등에 아동학과가 신설되었고, 우석대 등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아동학 전문인들을 양성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학문에 비해 한국에서의 아동학의 역사는 아직 20여 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확고한 학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당면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아동학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

1) 학문으로서의 아동학의 정체성 확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의 출발은 가정학과 또는 가정관리학과에서의 하위 관심 영역 분야로서였으며

그 역사 또한 그리 길지 않다 보니 아동학의 학문적 성격이 모호해진 문제점이 있다. 특히 대학에서 4년 동안 아동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가는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지금까지 아동학과가 학문적 성격상 유아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와 중복되는 일면이 있으므로 아동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들은 아동학 이외에도 유아교육, 아동심리 또는 아동복지에 관심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이 아동학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학문적 성격 또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4년 동안 아동학을 전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과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앞에서 언급한 졸업생 취업 대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아동의 성장·발달을 이해하려는 이론적·실제적 접근 영역과, 아동의 교육(주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이론적·실제적 접근 영역, 그리고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이론적·실제적 접근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영역 중에서 아동복지학과는 복지 영역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복지 관련 교과목 편성의 비중이 큰 반면에, 아동학과는 전반적인 아동 발달과 아동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과와 아동복지학과는 둘 다 재적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관련 과목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표 1〉 아동학과의 학부 교육과정

학년	이 수 과 목	
	유아교육 관련 과목	심리학 관련 과목
1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 언어 및 문학교육 유아 미술 교육	아동 심리학 아동 발달 정신 위생 아동 관찰 방법론
	공통과목 : 놀이 이론과 교육, 통계적 방법, 아동연구법	
3	유아교육사 철학 영유아 탄아 및 교육 프로그램 유아음악 및 율동교육 유아과학 및 수학교육 유아 사회 교육	아동 심리 검사 아동 상담 이론 아동 이상 심리
	공통과목 : 특수 아동학	
4	유아교육 기관 운영 관리 부모 교육론	청년 심리학 성격 심리학
	공통과목 : 아동 현장실습, 아동 복지, 가족 관계학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아동학과의 교육과정을 예로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것은 어느 한 특정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을 출생에서부터 청년, 성인기 까지 종체적 또는 발달 단계별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으로서 아동 심리학, 아동 발달, 청년 심리학, 성격 심리학 등의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을 위한 이론적·실제적 과목으로서 유아교육론, 유아교육사 철학,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미술 교육, 음악 교육, 언어 교육, 과학

교육 등의 각 과지도 방법에 관한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도우며 가족·가정과의 연관 속에서 그들의 성장·발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돋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동 관찰법, 아동 심리 검사, 아동 상담, 아동 복지, 그리고 부모 교육, 가족관계 등의 과목이 포함된다.

넷째, 아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아동 전문가로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적 방법, 아동 연구법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아동 현장실습이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습으로 얻은 지식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성은 보다 심도있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아동학과·아동복지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뒤의 〈표 2〉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학과의 강점이자 특색을 지적한다면, 아동을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보려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문적 관심의 대상에 따라 엄밀히 말한다면, 유아교육학과는 영유아기에서부터 학령전 아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제도권 내의 교육(유치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유아교육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아동복지학과는 일반 아동도 포함되지만,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일차적

〈표 2〉 대학원 교육과정표

구분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박사 공통 기초 및 선택 과목	고급통계(Ⅰ·Ⅱ), 아동학 세미나, 아동 연구 방법론, 가족 연구 세미나, 유아교육 세미나, 부모교육 세미나, 특수 아동 교육, 행동 수정 연구, 아동 관찰 연구 세미나, 성인·노인 심리 학, 놀이 이론, 아동복지론, 실험 설계법, 가족 관계학, 아동과 가정, 논문 세미나	
	발달 이론 심리 측정 성격 이론 인지 이론 아동 상담 아동 현장 연구 아동 건강 심리학 유아·아동 발달적 정신 병리 놀이 치료 세미나	아동 발달 세미나 학습 및 기억 연구 정서 사회 발달론 언어 및 사고 연구 인지 심리학 특수 연구 아동 상담 Ⅰ·Ⅱ 지각 발달 장애아의 진단 및 치료 비교 아동 발달론
심리 전공	유아교육 과정 연구 교수 이론 유아교육 현장 연구 유아 언어 인지 교육 과정 유아 사회 정서 교육 과정 유아교육 사조 연구 유아교육 행정 및 경영 세미나 유아교육 교수 및 평가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육 과정 설계 유아교육 연구 동향 유아교육 비교 연구 인지 교육론 유아교육 과정의 철학 사회교육론
유아 교육 전공	가족관계 연구 아동과 사회 사회 심리학 아동복지행정 아동사업기관 실습 놀이 치료	아동과 가족복지 사회화 과정 세미나 아동복지 발달사 사회 변화와 아동 문제 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 사회사업 교육론 학교 사회사업

으로는 아동복지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동학은 그 대상 연령의 범위
가 태아기에서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기애 이르기까지 보다 확대되어 있으며 학문적 관심 분야도 더욱 복합적이다. 즉, 아동학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인접 학문의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결론들을 통합 적용시킴으로써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력을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동학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4년제 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은 140학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전공 학점은 50~60학점 내외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졸업 이수 학점이 120학점으로 줄어들 경우 전공 학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육 현실은 아동을 위한 교육, 심리, 복지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아동학의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즉, 아동교육, 아동심리 또는 아동복지로 모두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기에는 현행 아동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과목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아동의 성장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아동 전문가가 아니라 그 어느 한쪽에서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점은 아동학과의 특성이 광범위하여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단점으로 대두하게 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동학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동학을 전공한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아동학의 전문적 영역과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은 인접학문과의 단절된 관계에서보다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그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동학의 정체성은 명백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 아동학과 교수들과 관련 전문가들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연구를 거쳐 아동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2) 졸업생의 진로와 취업 문제

4년간의 대학교육을 통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해 냈을 때 어떤 전공영역이든지 간에 졸업생의 진로와 취업 문제는 학과의 존폐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아동학을 전공하고 전공과 관련하여 취업하는 졸업생들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진로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① 유아교육 현장 : 유치원 교사(입학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됨)
- ② 어린이집 및 보육교육 현장 :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육 교사(졸업과 동시에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음)
- ③ 아동 관련 기관 : TV, 잡지, 출판사 등 각종 매체나 기관에서 아동 관련 교구, 교재, 홍보물 등의 제작 참여

- ④ 대학원 진학 : 유아교육, 아동심리 또 는 아동복지 중 한 영역을 전공함

⑤ 기타

이러한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이나 어린이집 및 보육교육 현장에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취업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자의 성적순으로 대학 2학년에 결정) 교사 자격증을 주게 되는 제한점 때문에 교육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주며, 학과 내에서도 자격증 취득 예정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학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30%의 학생들을 위하여 상당수의 유아교육 관련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아동학과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문제점에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30%라는 통계적 기준의 적용으로 인력 양성의 폭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격기준의 준거를 보완하여, 유아교육 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학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아동학과 졸업생들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의 확충 및 개편, 교육 자료와 시설의 확충, 교수방법의 개선, 교수의 확보 및 현장과의 유대 증대 등 교육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폭넓은 아동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도 보다 포괄적이어야

할 것이며, 아동학의 학문적 특성과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문과 현장 간의 연계성 강화

아동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이론적 접근과 실제 현장에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아동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연구와 활동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제
-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교육과 관련된 주제
-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간관계 수립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④ 아동·가족 문제의 전문상담가 훈련
- ⑤ 유아, 청소년 및 성인 교육자(교사)·전문가의 양성
- ⑥ 가족 생활, 가족관계 연구를 통한 정보의 제공
- ⑦ 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의 개발과 제시
- ⑧ 문제를 가진 가족,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 발생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⑨ 태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를 통한 정보의 제공
- ⑩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아동과 환경간의 관계 이해

이상에서 열거한 주제 영역들은 대부분이 가족, 교육, 사회 등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초로 해서 확장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동 전문가를 배출해

내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상아탑 내에서의 이론 중심 교육보다는 이론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의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현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대학의 학점과 연계되어 있는 현장 경험의 학점 수는 주당 3시간에 해당하는 3학점으로 1학기 또는 2학기 과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실습학점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실습을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소라도 현장 경험의 폭을 늘려주려고 시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습을 지도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나, 실습생을 받아주는 실습지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가 다같이 실습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조치를 상호 협조 아래 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즉, 대학과 사회현장에서 분담할 교육의 내용과 범위 및 교육방법의 결정에 서로 얼마나 협의하고 있으며, 대학과 사회 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아동학 전공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현장'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즉, 지금까지는 유아교육 관련 현장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직장탁아소 등과 아동심리 관련 현장으로 공립, 시립 또는 사설 아동상담소, 아동심리 연구소,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현장으로 재활원, 장애아동 교육·수용 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이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병원, 공공 행정기관, 청소년 시설, 체육 시설 및 각종 지역사회봉사기구까지도 실습현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발전된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독특성과 잠재력 개발을 강조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더욱 팽배할 것으로 추론되며, 아동학의 학문적 배경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인간의 복지 증진으로 그 관심의 폭과 활동의 현장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현장에 대한 아동학 전공 학생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더욱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해서 철저한 현장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현장에 알맞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며 각 현장실습의 목표,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대학과 현장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행과정에서도 두 기관의 협조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맷는 말

이상에서 아동학과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각 대학 아동학과의 특성이나 중점 교육방향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어떤 문제점들은 대학에 따라서 이미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거나, 이 글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으로 이미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 어떤 부분은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교육 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아동학의 역사는 이제 겨우 이십여 년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아동학과의 학문적 특성이나 전공의 범위 영역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학과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본 소론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

강문희/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이화여대 사범대학에서 아동발달·아동심리 전공으로 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유아언어교육』, 『아동생활지도』, 『유아생활교육』, 『쫓기는 아이들』(역서) 등이 있고, “아동의 종교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의 유머 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